

강진군, 2회 추경 6265억원 편성 민생경제 활성화

1회 추경 대비 316억원 증가
주민생활 밀접 사업 최우선시
육아수당, 농기계지원 편성 등
한정된 재원 여건 '선택과 집중'

강진군이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65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6015억원, 특별회계가 250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제 수입 저조 등 재정 여건 악화로 올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세출 구

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우선순위로 편성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5.3%, 316억원(일반회계 312억원·특별회계 4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63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 국·도비보조금 111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전년도이월금 44억원 등 총 31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비 136억원,

전년도 이월금 4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45억원이 고정 지출되며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급한 사업, 내년에 계획된 축제 대비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 9억원 △강진군 육아수당 5억원 △강진만 패류감소 공익 소송비 지원 3억원 △영농스마트팜 예정부지 매입 3억원 △코끼리 마을 꽃단지 조성 1억200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 8400만원 △공공배

달엽 먹개비 활성화 지원 54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교부세 및 세수가 감소해 한정된 재원 여건속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0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외국인 근로자 124명 현장 투입
무안군,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무안군은 지난 11일과 20일 입국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필리핀 34명, 라오스 90명)을 영농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안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리핀 실랑시·라오스 고용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나서 올해 상반기 318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34명은 농가에 배치해 영농작업에 투입했고 20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90명은 42농어가와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정할 계획이다.

군은 입국한 계절근로자들과 고용주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장오중 농업정책과장은 "타국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무안군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만큼 근로 기준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영암군, 치매치료 관리 지원 확대 중위소득 120%→140% 이하 변경

영암군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급하던 치매치료 관리비를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로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1만648원(직장가입자), 4만8566원(지역가입자) 납입자까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영암군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전, 영수증,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이달 27일까지 장학생 신청·접수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희수)가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선발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진도군 총무과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진도군 공공앱과 정부24(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 장학생은 중등·고등·대학생 대상 △특기 장학생은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보배사랑 장학생은 고등·대학생 대상 △학교밖 청소년 장학생은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가 대상이다.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60명에게 장학금 약 40억원을 지급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어린이·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영암군, 내달 25일까지

영암군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흡연·음주 예방교육에 들어간다.

영암군은 사전 신청한 6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430명이 참여하는 하반기 '홀로그램 흡연 예방교육'을 10월25일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육에서는 특수제작된 전용 스크린에 3차원 영상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흡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린다.

상반기 교육에서 선보인 홀로그램 교육은,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의 중독성을 사실적 영상으로 전달해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며 학생과 교사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4일 영암군청소년수련관, 25일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25곳 600여 명이 관람하는 '흡연·음주 예방 뮤지컬 공연'이 펼쳐진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공연은 도깨비가 나와 노래와 율동을 곁들인 흥미 있는 이야기로 담배와 음주의 유해성·중독성을 알린다.

공연 마지막에는 어린이들이 평생 금연을 다짐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무안군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성장·비만 예방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무안군은 10월31일까지 남악·오룡지역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장·비만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어린이집 원아 대상 성장·비만 예방 교실

무안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남악·오룡지역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장 및 비만 예방 교실을 진행한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교실에서

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편식 예방 영양교육과 영양체험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에어사다리 신체활동, 집중력 향상과 전신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파

라슈트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영암군,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731원 책정

최저임금 대비 701원 ↑

영암군이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31원으로 결정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을 231원(2.2%)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2779원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전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영암군 생활임금은 내년 1년간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50여 명에게 적용된

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이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영암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오고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민의 상’ 수상자 접수

관광·문화예술 등 5개 부문

진도군이 오는 11월 1일 제49회 진도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을 빛낸 군민을 찾아 '진도군민의 상'을 수여한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대상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해 온 군민·단체 등으로 △공공복지 부문 △교육·체육 부문 △관광·문화예술 부문 △복지·환경 부문 △지역개발 부문, 총 5개 부문에서 부문별 1명

(단체일 경우 1개 단체)을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 기한은 30일까지이며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읍·면장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개인의 추천하기 위해서는 주민 3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등이며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증빙자료를 첨부해 진도군 총무과 서무팀(061-540-3236)으로 제출하면 된

다. 진도군은 10월 중에 엄격한 공적 사실 조사 후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수상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제49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진도군민의 상은 군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사람에게 시상하며 역대 수상자는 29명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